전세계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김 일 성

력사 유적과 유물을 발굴복원하는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정무원책임일군들, 력사학자들과

한 담화 1987년 6월 7일

나는 오늘 력사 유적과 유물을 적극 발굴하며 잘 복원할데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어제 개성도시형성계획사판을 보아주면서도 강조하였지만 우리는 도시를 건설하거나 유원지를 하나 꾸려도 거기에 있는 력사 유적과 유물을 잘 보존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력사 유적과 유물은 민족의 재보이며 대를 이어가며 전해야 할 유산입니다. 민족의 자주의 력사, 창조의 력사는 유적과 유물을 통하여 전해지고있습니다.

력사 유적과 유물을 발굴하고 잘 복원하는것은 우리 인민들을 애국애족의 사상으로 교양하고 민족문화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력사 유적과 유물을 적극 발굴하고 잘 복원하여야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이 자기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알고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수 있으며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빛내여나갈수 있습니다.

력사 유적과 유물을 발굴하고 복원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력사발전과정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가 존재하였던 삼국시기와 그 이전시기의 우리 나라 력사를 기록한 책들이 있었지만 거의다 없어지고 지금까지 남아서 전해지고있는 력사책들은 주로 고려시기와 그 이후 시기의 력사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나라의 첫 노예소유자국가였던 고조선의 력사발전과정은 물론, 고구려의 력사발전과정도 과학적토대우에서 체계화해놓은것이 없습니다. 력사 유적과 유물을 발굴복원하는 사업을 잘하면 우리 나라 력사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밝히는데 큰도움이 될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지고있는 슬기로운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인류문화의 려명기부터 이 땅에서 살면서 고유한 민족문화를 창조하였으며 인류의 과학과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나라 력사책도 많이 보고 다른 나라 력사책도 많이 보는데 우리 인민처럼 재능있고 지혜로운 인민은 이 세상에 얼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먼 옛날부터 철을 생산하여 그것으로 생활도구를 만들어 널리 리용하였습니다. 금속활자도 우리 선조들이 일찍부터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7세기에 벌써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천문대인 첨성대를 세우고 천문기상을 관측하였으며 농업과 관련한 력서를 만들어 리용하였습니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고조선시기부터 천문기상을 연구하여 농업에 리용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건축술과 조각술도 발전하였습니다. 평양의 련광정과 강계의 인풍루, 묘향산의 보

현사와 불영대, 개성성균관,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 석굴암의 조각상들은 다 우리 선조들의 뛰여난 건축술과 조각술, 예술적기교를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고대와 중세의 고분이 많은데 그가운데는 벽화가 있는 고분도 적지 않습니다. 고분의 벽화들은 우리 나라 미술이 일찍부터 매우 높은 수준에서 발전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나는 전후에 황해남도에 있는 안악 3호무덤을 가보았습니다. 그 무덤은 4세기중엽 고구려왕릉으로서 웅장하고 화려할뿐아니라 벽화에는 왕과 왕비, 신하들과 시종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내용이 실감있게 그려져있습니다. 벽화에는 왕의 경력을 쓴 글자도 있고 250여명이나 되는 인물들이 각이한 모습으로 왕의 행차를 보좌하는 행렬도도 있습니다. 덕흥리벽화무덤에는 무덤의 주인공이 넓은 령토를 다스리였다는 내용을 보여 주는 벽화와 600여자의 글자가 씌여져있다고 합니다. 안악 3호무덤과 덕흥리 벽화무덤은 지금으로부터 1,600여년전 고구려인민들의 뛰여난 재능과 생활풍속, 발전된 문화와 강대성을 잘 보여주며 이것은 고구려의 력사를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나라의 고대문화는 다른 나라에까지 전파되였습니다. 삼국시기 우리 선조들은 일본에 건너가 건축술, 도자기술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술과 문화를 보급하여

그 나라의 문화발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고려사람들은 색과 문양, 모양이 특출한 도자기를 만들어 우리 나라의 이름을 세상에 떨쳤습니다. 지금도 고려자기는 세상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력사 유적과 유물이 많았으나 그 대부분이 외래침략자들에 의하여 파괴되였거나 략탈당하였습니다. 일본침략자들은 임진조국전쟁때에 우리 나라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닥치는대로 파괴하였을뿐아니라 그후 조선을 강점한 다음 수많은 유물을 략탈하였으며 고분까지 도굴해가는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민족의 력사 유적과 유물이 파괴되고 략탈당한데 대하여 누구보다 가슴아파한것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이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는 진정한 애국자들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해방한 다음 새 조국을 건설하면서 민족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해방직후에 민족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사업을 맡아보는 국가기구를 내오고 력사 유적과 유물을 발굴하여 보존하도록 하였으며 력사박물관을 건설하고 전국 각지에 있는 력사유물을 수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력사 유적과 유물이 있는 곳에는 다른 건설을 하지 못하게 엄격히 통제하였습니다. 평양에 종합대학을 세울

때 일군들이 대학건설부지를 고구려의 토성이 있는 자리에 정했기때문에 나는 대학건설부지를 다른곳에 잡고 고구려의 토성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민족문화유산을 발굴하여 보존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 결과 해방후에 평양시를 비롯한 각 도 소재지들에 력사박물관이 건설되고 력사 유적과 유물이 국보로서 조사등록되였으며 전국각지에 있는 절간들도 그대로 보존되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귀중한 력사 유적과 유물이 많이 파괴소각되여 없어졌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폭격에 의하여 력사박물관들에 보존되여있던 문화유물들도 적지 않게 없어졌으며 광법사, 장안사를 비롯한 절간들도 많이 파괴되거나 불타버렸습니다.

우리는 전후에 나라의 형편이 몹시 어려웠지만 파괴된 력사유적들을 복원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1954년에 전쟁시기에 파괴되였던 평양성 북성의 북문인 현무문과 개성의 남대문을 원상대로 복구하였습니다. 그후에 우리는 대성산을 인민들의 문화휴식터로 꾸리면서 고구려시기에 쌓은 대성산성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남문을 다시 세웠으며 관서 제일루로 불리우는 안주 백상루를 비롯한 일부 루정과 절간들을 복구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이름난 절간의 하나인 묘향산 보현사의 대웅전과 만세루도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에 불타서 없어졌던것을 복구하였으며 보현사에 《팔만대장경》과 그것을 인쇄할 때 썼던 목판을 진렬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팔만대장경》을 국보로 보존하고 있을뿐아니라 우리 말로 번역출판하도록 하였습다.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력사 유적과 유물들이 소중히 보존관리되고있으며 자취를 감추었던 적지 않은 유적유물들이 발굴복원되여 근로자들을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며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고있습니다.

력사 유적과 유물을 발굴하고 복원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당의 방침에 따라 앞으로도 력사 유적과 유물을 발굴복원하는 사업을 계속 잘해나가야 합니다.

력사 유적과 유물을 발굴복원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주체성의 원칙을 견지하는것입니다.

력사 유적과 유물을 발굴복원하는 사업에서 주체성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력사 유적과 유물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할수있고 그것을 복원하는데서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릴수 있습니다.

력사물취급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력사학분야에 남아있는 사대주의적잔재를 없애기 위하여서도 필요합니다. 지난날 봉건통치배들은 사대주의를 하면서 우리 나라 력사를 정확히 서술하지 못하고 력사적사실들을 적지 않게

외곡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력사를 돌이켜보면 고구려때에는 사대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는 신라봉건통치배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생겨났으며 리조시기에 와서 더욱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리조봉건통치배들은 건국초기부터 큰 나라를 섬겼으며 결국 사대주의를 하여 나라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사대주의에 물젖은 반동통치배들은 다른 나라의 《기자》라는 사람이 기술자들을 데리고 우리 나라에 와서 조선을 문명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모란봉에 《기자》묘를 만들어놓고 제까지 지냈습니다. 나는 《기자》설이 력사적사실과 맞지 않기때문에 해방후 모란봉에 있는 《기자》묘를 파보게 하였습니다. 《기자》묘를 파보니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짜무덤이였습니다.《기자》설은 사대주의자들이 꾸며낸 허황한 거짓이였습니다.

일제침략자들은 우리 나라를 강점한 다음 민족말살정책을 쓰면서 우리 민족의 력사를 외곡선전하였을뿐아니라 오랜 력사책들을 없애버리는 책동까지 감행하였습니다.

력사학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지 않으면 외곡된 력사적사실들을 바로잡을수 없으며 유구한 우리 나라 력사를 정확히 밝혀낼수 없습니다. 력사학자들은 언제나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제정신을 가지고 우리 나라 력사를 연구하여야 합니다.

력사 유적과 유물을 발굴복원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력사주의적원칙을 지키는것입니다.

력사주의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력사 유적과 유물을 복원하는 사업을 잘할수 있습니다.

만일 력사유적과 유물을 력사적사실자료에 기초하여 복원하지 않고 현대화해놓으면 천만금을 들여 복구하여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적과 유물의 력사적가치를 살릴수 없을뿐아니라 도리여 인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력사 유적과 유물은 력사주의적원칙에서 당시의 모습그대로 복원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적원칙에서 국보적가치가 있는 력사 유적, 유물들을 잘 복원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고구려의 왕궁이였던 안학궁과 고구려 시조왕인 동명왕의 릉을 잘 복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평양시형성계획사판을 보았는데 거기에 안학궁을 복구하기 위한 내용이 잘 반영되여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우리 나라의 첫 봉건국가로서 오랜 력사적기간 강대한 나라로 존재하였습니다. 광활한 령토를 차지하고 있던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길 때 안학궁을 건설하였습니다. 안학궁터를 발굴한데 의하면 50여채의 궁전터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안학궁은 그 터만 보

아도 얼마나 웅장하였겠는가 하는것을 짐작할수 있습니다. 안학궁을 복구한다고 하여 50여채의 궁전을 다 복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몇개 궁전만 고구려건축물의 특성에 맞게 잘 복구하면 될것입니다. 궁전을 복구한 다음 민족력사박물관으로 하겠는가 하는것은 더 연구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동명왕릉은 우리 나라 력사와 문화전통을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유적입니다. 가정에 조상이 있듯이 나라에도 조상이 있는 법입니다. 어느 나라나 다 조상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첫 봉건국가인 고구려를 세운 시조왕은 동명왕입니다. 고구려사람들은 동명왕을 조상으로 숭상하였습니다. 고구려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신격화하였는가 하는것은 고주몽에 대한 전설만 보아도 잘 알수 있습니다.

동명왕릉에 대한 문제는 해방직후부터 많이 론의되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동명왕릉이 고구려의 무덤이 아니라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가짜무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후에 우리 나라 력사가들은 고구려사람들이 427년에 수도를 평양으로 옮길 때 동명왕의 무덤을 옮겨왔다는것을 고증하였습니다. 우리 조선사람들은 조상의 무덤을 매우 귀중히 여깁니다. 해외에서 살던 동포들이 귀국해올 때 조상의 유골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고구려사람들이 수도를 옮

길 때 자기 시조왕의 유골을 옮겨오지 않았을리 없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해외동포들이 우리 나라에 오면 고구려의 유적을 보여줄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해외동포들이 조국에 오면 우리 나라의 건국왕은 누구이며 그의 무덤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동명왕은 고구려의 시조왕인것만큼 우리는 응당 그를 내세워야 합니다. 동명왕릉을 고구려의 묘법제에 따라 품위있고 고구려의 맛이 나게 잘 꾸려야 하겠습니다. 지난날 리조봉건통치배들이 동명왕릉의 돌조각상들을 제멋대로 만들어 세우고 비문도 허황하게 써놓았는데 이번 기회에 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동명왕릉을 꾸리면서 주변에 있는 오래 자란 소나무들을 다치지 말아야 합니다. 왕릉주변에 있는 고분들도 다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동명왕릉앞에 정릉사터가 있는데 정릉사도 복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릉사는 동명왕릉을 위하여 세웠던 절간이므로 그것을 복구해놓아야 고구려시조왕릉의 위풍이 더 살아날수 있습니다.

대성산에 고구려시기의 유적과 유물이 많은데 필요한것들을 복원하여야 하겠습니다.

대성산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건설할 때 대성산성의 일부 성벽을 복구하고 정각들도 지어놓았지만 절간을 비롯한 일부 유적들은 복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성산

에 있던 광법사를 복구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광법사는 고구려시기에 세운 절간이라고 합니다. 고구려에서는 372년경부터 불교가 들어와 이르는 곳마다에 절간을 짓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평양시에 광법사를 비롯하여 절간이 많았으나 지금까지 남아있는것은 만경대구역에 있는 법운암뿐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찾아오는 사람들가운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광법사를 복구하여 거기에 가서 불공을 드리라고 하면 좋아할것입니다.

옛날에는 대성산에 잉어못, 사슴못, 구룡못, 장수못을 비롯하여 못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성산에 있던 못들을 발굴하고 필요한것은 복원하여야 합니다.

대성산과 그 주변에 있는 유적들을 잘 복구해놓으면 대성산이 더 훌륭한 인민의 유원지로 될것입니다.

고려시기의 유적유물들도 필요한것은 복원하여야 하겠습니다.

고려시조왕의 무덤인 왕건왕릉을 개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사람들이 공민왕릉은 크게 꾸렸지만 왕건왕릉은 그렇게 꾸리지 못하였습니다. 고려의 왕건왕릉을 공민왕릉을 참고로 하여 꾸리면 잘 꾸릴수 있을것입니다. 왕건왕릉을 어떻게 개건하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어느 기회에 다시 말하려고 합니다.

개성은 고려의 수도였던것만큼 거기에 고려시기의 왕궁이였던 만월대를 비롯하여 유적이 많습니다. 개성

시에 있는 유적들가운데서 고려의 건축술을 보여주는 유적들을 복구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개성시에는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것만큼 고려시기의 유적들을 잘 복구해놓으면 그들에게 보여줄수 있을것입니다.

금강산을 비롯하여 명승지들에 있는 유적들가운데서 대표적인 유적들을 복구하여야 합니다.

나는 해방직후에 금강산 외금강에 있는 신계사에 가보았는데 신계사는 10여채의 건물로 이루어진 웅장한 절간이였습니다. 그때 나는 일군들에게 선조들의 기묘한 건축술을 보여주는 신계사를 잘 보존할데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미제의 폭격에 의하여 신계사 건물은 물론, 그안에 보존되여있던 유물들이 다 불타버리고 지금은 3층석탑만 남아있습니다. 신계사의 대표적인 건물을 복구하여 금강산에 유람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것이 좋겠습니다.

력사 유적과 유물을 새로 더 발굴하는데도 계속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력사학자들이 력사 유적과 유물을 발굴하는 사업에서 지난 기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검은모루유적, 승리산동굴유적, 굴포리유적을 비롯하여 구석기시대의 유적들이 평양시와 평안남도와 함경북도 일대에서 발굴되여 조선반도에서 인류력사의 첫 시기부터 사람들이 살고있었다는것이 고증되였습니다. 놋과와

비파형단검, 잔줄무늬거울을 비롯한 고조선시기의 유물들도 여러 지방에서 발굴되였는데 이것은 고조선의 문화가 발전하였다는것을 보여주는것입니다.

앞으로 력사 유적과 유물을 발굴하는 사업을 잘하여 가치있는 유적과 유물들을 많이 찾아내야 합니다. 특히 고조선시기의 유적과 유물을 발굴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고조선은 우리 민족의 시조국가이며 우리 나라의 첫 노예소유자국가입니다. 고조선은 광활한 령토를 가지고 오랜 력사적기간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조선에 대한 력사기록이 얼마 없고 고조선시기의 유적과 유물이 발굴된것도 많지 못합니다. 고조선시기의 유적과 유물을 발굴하면 고조선의 건국년대와 력사발전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힐수 있을것입니다.

고조선이 존재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기때문에 그때의 유적과 유물을 발굴한다는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조선시기의 고분들이 남아있을수 있는것만큼 다른 유적과 유물은 찾지 못한다고 하여도 고분들은 찾을수 있을것입니다. 고분들이 평양과 평안남도 지방에 많은데 그가운데는 고조선시기의 고분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나라 력사를 더 연구한 다음 앞으로 력사학자들에게 우리 나라의 고대력사연구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방향을 주려고 합니다.